

전남테크노파크 분해성 고분자소재 기반구축 나서

자연서 완전분해 소재 개발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사업 2023년까지 168억 투입

전남테크노파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 기, 비닐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자연에서 완전 분해되는 제품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전남테크노파크의 설명이다.

28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정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국비 60억

원, 지방비 106억원 등 1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18년 전남도, 여수시와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해왔다.

분해성 고분자소재는 농업용, 여수산용 기자재, 포장재, 생활용품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회용 기 및 비닐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자연환경에서 완전 분해되는 제품으로 대체하는 산업으로, 석유화학 및 바이오매스 기반의 생분해성 기술을 통칭한다.

전남지역의 영농폐기물(폐비닐) 발생량 및 해양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해성 고분자소재 기술을 개발·보급하겠다는 것이 전남테크노파크의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미 지난 2018년 금성필름,

남해화학 등과 함께 남해화학에서 생산되는 부산 석고를 적용한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 필름'을 개발해 마늘, 고구마, 양파 재배 농가에 보급 중이다. 또 해양 폐기물 처리에 일환으로 나산프라스틱과 생분해성 해양 부표 생산 및 실증 기술을, 생활계 식품포장재 플라스틱 처리를 위해서는 영암기업인 KC와 공동으로 생분해성 리필용 파우치를 각각 개발하는 등 지역기업들과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이플리텍(여수), 제로하우스(함평), 대신물산(장성), 대신에니텍(영광), 나산프라스틱(나주) 등 5개 지역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전남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가공 관련 기술'을 통해 단일 및 소용량단용 비드폼 개발(해양 부표용), 생분

해성 발포 제품(자동차 부품 용), 생분해성 대전방지 포장박스(자동차 부품 포장재용) 등의 상용화에 나서게 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개발된 친환경 생분해 제품이 국내의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도록 소재에서 제품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하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발맞춰 지역 중소기업이 친환경 분해성 고분자소재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정부 정책에 조기에 대응하고 기존 고분자소재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생분해성 고분자소재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 이동권 편의 증진 새빛콜 운영 개선 나서야”

이용섭 시장, 간부회의서 지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장애인 이동권 편의 개선과 어르신 생활체육 시설 확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등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들어 장애인 맞춤형 복지 제공에 집중해 왔지만, 광주시 교통약자 콜택시인 ‘새빛콜’은 여전히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 및 점심 시간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 근무조 신설 및 탄력적 운영, 추가차량 도입과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바우처택시 시범 운영 등을 검토해주시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2004년 개장한 호남최대 농수산물유통단지인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경매장과 저장창고가 매우 협소하다”며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채소동 증축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고령화 시대 트렌드 변화에 따른 어르신 생활체육 시설 확충 등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체육종목이 게이트볼 중심에서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로 바뀌고 있고, 향유인구도 크게 늘고 있다”며 “현재 계획 중인 첨단대상공공시설 확장사업과, 첨단 3지구 내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일곡근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천연물산업 1번지 전남도 온택트 투자유치 설명회

천연물산업 1번지 전남도가 전국 최대 생물자원과 산업인프라 등 강점을 내세워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28일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전남의 천연자원 환경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리는 '천연물산업 온택트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2030 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이날 비대면 투자설명회를 통해 전국 최대 생물자원과 산업인프라를 비롯해 도내 천연물산업 연구기관의 주요 사업 및 지원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인 '옴므 전남튜브'와 장흥군 공식 유튜브에서 실시간 동시 진행했으며, 기업, 관련기관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화순군민과의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오후 지역 현안사항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순군 도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전남도, 30일 서울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남도가 오는 30일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연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남도 주요 간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전남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감사(10월 1~21일) 이후 본격화될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지역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예산안에 누락된 신규 사업의 예산안 반영, 예산안에 삭감 반영된 전남도 주요 사업의 사업비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전남도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부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1개월여간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 1205건, 사업비 7조5131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7조1782억원보다 3300억원 늘어난 규모이지만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빠지거나 요구액보다 낮게 반영돼 국회 심사 단계에서 예산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총사업비 6312억원 중 5억원 신규 반영 목표) 등 주요 사업 10가지를 신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남도, 10월부터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전남도내 4000여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개월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약 4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월 현재 7만 5000가구 10만 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 2000여 명이다.

우흥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광주시, 1인당 10만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10만원이며, 1회 한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 2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주민등록)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 재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10월29일까지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 등록 장애인은 6만9852명이며, 복지급여 대상자가 있는 등록 장애인 3만6685명(52.5%)은 지난 16일 1차 지급을 마쳤다. 복지급여 대상자가 없으나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등록장애인 1만6170명(23.2%)은 30일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정기예금 1년 최고 2.2%
MG더뱅킹 정기예금 최고 2.3%

우대조건

- 스마트알림서비스 가입 후 1회 이상 로그인
- 만기자동이체 등록
-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거래실적 6회 이상

MG NEW 정기적금 1년 최고 2.6%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용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전사거리

광주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농성 빙어물체 아파트

월산동 명품 반도유보 아파트

광주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